

혼밥·혼술, 혼자여도 괜찮아...한가위 나만의 세상 즐겨요

추석 새 트렌드 '홀로'를 아시나오

광주시 동구 자산동에 사는 회사원 정연석(38)씨는 지난 주말 고향인 영광을 방문해 부모님을 뵙고 왔다. 추석 연휴기간 여행 계획을 세웠던 터라 명절 전 미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애초 동남이나 중국 쪽으로 여행을 떠날 생각이었지만, 계획을 늦게 세우는 바람에 여행상품을 찾기 힘들었다. 항공권과 숙박 등도 예약이 완료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정씨는 여행이 수포로 돌아갔지만 4일간(12~15일)의 연휴에도 고향을 찾지 않기로 했다. 차라리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몰아 보고, 평소 회사원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게임 등을 하며 모처럼 '나홀로의 삶'을 누리려 생각이다.

여행경비로 모아둔 돈도 높은 사양의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구입에 투자했다. 큰 마음을 먹고 수백 만원을 웃도는 고성능 대형 모니터를 구입했고, 연휴기간 집

명절날 '가족과 함께' 옛말 1인 가구 늘며 개인생활 중시 귀향 대신 여행·취미 만끽 카페처럼 바 처럼 집 꾸미고 애완견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에서 간단히 해먹을 수 있는 간편식과 음료도 넉넉히 챙겨왔다.

정씨는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면 친척들이 모여 앉아 '만나는 사람은 있냐', '결혼은 언제 하나', '돈은 얼마나 모았냐' 등 잔소리를 해 곤혹스럽다"며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쉬는 날 고향집에서까지 시달리고 싶지 않아 혼자 쉬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때부터 광주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김민희(여·36·광주시 남구 백운동)씨



역시 이번 추석엔 고향인 벌교에 가지 않기로 했다.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키우기 시작한 7살짜리 푸들 강아지 '비스' 때문이다. 집

안 어른들이 애견 키우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기는데, '비스'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어렵다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김씨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연휴 기간 애완견 호텔이나 애견 카페에 '비스'를 맡기는 것도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았다"며 "연휴를 맞아 반려견과 온전히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쌓고 싶다"고 했다.

그는 명절 연휴에도 문을 여는 애견카페를 찾아 다니고, '비스'가 가장 좋아하는 특별 간식도 준비하는 등 반려견과 함께하는 추석맞이를 계획 중이다.

"명절엔 가족과 함께"라는 것도 옛말이었다.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는 '홀로 가(家)'가 증가하면서 민족 대명절이라 불리는 한가위 풍속도가 바뀌고 있다.

'홀로'는 '나 홀로'에 현재를 즐기는 사람을 뜻하는 '올로(YOLO·You Only Live Once)', 집을 뜻하는 한자어 '가

(家)'가 합쳐진 신조어다. 부모와 친지 등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거주공간에 마음껏 투영해 '자기만의 개별화된 주거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집을 PC방처럼 꾸미고, 커피나 술을 좋아하면 집안 분위기를 카페 또는 '바(Bar)'로 조성하기도 한다. 혼자 사는 공간에 취향을 반영해 본인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홀로가가 증가하면서 유통가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추석 대목 잡기' 전략도 바뀌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혼자 추석을 보내는 '혼족족'을 노린 명절 간편식을 내놓는다면, 도심에서 추석연휴를 비강스처럼 즐길 수 있는 '추(秋)강스' 패키지 상품도 쏟아내고 있다.

특히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젊은층이 혼자 보내는 시간을 선호하면서 앞으로는 친지와 이웃들이 모여 정과 안부를 나누던 기존의 명절 모습은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9.3% 수준인 582만여 가구로, 2025년에는 670만 가구(31.9%), 2045년에는 무려 809만 가구(36.3%)에 이를 전망이다.

광주지역 1인 가구도 ▲2016년 16만 5169가구 ▲2017년 17만 1424가구 ▲2018년 17만 4614가구 등 증가세다. 전남 지역도 ▲2016년 22만 7225가구 ▲2017년 23만 2022가구 ▲2018년 23만 5062가구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심미경 광주전남연구원 가구담당 책임연구원은 "홀로족 같은 현상은 1인 가구의 증가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관계 맺기에 대한 컨테이 등과 연관돼 있다"며 "한국의 집단·서열문화와 취업의 부담감이 젊은이들의 혼족 문화를 부추기고, 이는 곧 인구구조로 이어져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김명수 대법원장

16일 전남대 로스쿨 특강
망월동 묘역도 참배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16일 광주를 방문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과 소통한다.

1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전남대학교 초청을 받아 오는 16일 오후 4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로스쿨 학생, 교수 등을 상대로 특강을 한다. 대법원장이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것은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미래 사법이 나아갈 방향을 설명하고 예비 법률가인 학생들의 에로사항이나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등 쌍방향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전남대 특강에 앞서 같은 날 오전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찾아 이한열·박승희·최현열 열사, 위르겐 힌츠페터 묘역 등을 참배할 예정이다.

이어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오찬 간담회를 통해 법원의 각종 사법제도 개선 작업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재판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경청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 현판식이 10일 오전 옛 전남도청 별관앞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이용섭 광주시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오월어머니들 오월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최현배 기자choi@

옛 전남도청 복원 본격화...추진단 현판식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현판식이 열리는 등 5·18 최후의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는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현판식을 계기로 추진 체계뿐 아니라 복원을 위한 자료 수집, 전시콘텐츠 구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0일 오전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추진단)' 현판식을 열었다.

현판식에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 이용섭 광주시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정영일

·김후식 옛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도청지킴이 어머니, 5·18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문체부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옛 전남도청 복원 업무를 팀제 형태로 운영해왔지만,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복원을 위해 전남조직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관계 부처, 복원협의회 등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8월 27일에 추진단 신설을 최종 확정했다.

추진단은 문체부 제1차관 직속으로 단장(고위공무원)을 포함해 복원협력과, 복원시설과 및 전시콘텐츠팀을 두고 필요한 인력 24명을 구성해 2022년까지 복원을 추진한다.

현판식에 참석한 박양우 장관은 "복원 사업을 통해 옛 전남도청을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복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옛 전남도청 복원을 요구하며 2016년 9월 7일부터 농성을 해온 복원대책위는 지난 6일 복원전담조직 신설 등에 따라 항의농성을 마무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선배 약혼녀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 사형 구형

광주지법 순천지정은 10일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6)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의 행동은 잔혹한 범행 수법과 반인륜적 범죄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5월 27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전 8시 15분 사이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43)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광주 비엔날레전시관 기념품 점포 화재 '화들짝'

지난 7일 개막한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일부만 타격을 본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10일 광주북부경찰과 북부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 입구에 위치한 기념품 가게 천장에서 불이 났다.

당시 가게 오픈을 준비중이던 직원들

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고 대피해 천장 일부만 타격을 본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디자인비엔날레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인해 행사는 차질이 없었으면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플카범 사진 삭제하고 발뺌...자동 저장 앱에서 발견돼 '들뚱'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신발이 예뻐서 사진을 찍었다"며 발뺌한 20대가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행.

○...1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박모(27)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출동한 경찰에게 사진을 삭제한 뒤 휴대전화를 건넸으나, 자동으로 사진이 저장되는 앱에서 사진이 발견되는 바람에 붙잡혔다는 것.

○...박씨의 휴대폰에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60여 장의 사진과 영상이 추가로 발견됐는데,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진첩에 사진만 삭제하면 모를 줄 알았다"며 선처를 호소.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